

“KIA 이기는 야구 보고 싶다면 토요일에 관람을”



‘호랑이군단’의 이기는 경기를 보고 싶다면, 토요일 관람을 선택하는 게 좋다. KIA 타이거즈는 올 시즌 토요일 경자다. 토요일에 진행된 18경기에서 13승 5패를 기록하고 있다.

시작은 좋지 않았다. 토요일에 진행된 4월 1일 SSG 랜더스와의 시즌 개막전에서 1-4패로 지면서 개막전 연패가 6연패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KIA는 최근 토요일 경기에서 7연승 질주를 하고 있다. 연승의 시작점은 양현종이 있었다. KT와의 6월 24일 홈경기에서 양현종이 6이닝 1실점(비자책점)으로 마운드를 지키면서 4-1 경기의 승리투수가 됐다. 부상 복귀 후 두 번째 경기에서 나섰던 김도영은 이날 2루타 2개로 멀티히트를 기록하면서 결승타 주인공이 됐다. KIA는 7월 1일 LG와의 원정경기에서 658일 만에 선발로 나선 ‘대체 선발’ 김건국을 내세워 5-3 승리를 거뒀다. 이날 김중국 감독은 3연패에서 탈출, KBO 통산 100승을 재웠다. 토요일 3연승은 이의리가 있었다. 7월 8일 수원구장에서 KT 고영표와 선발 맞대결을 벌인 이의리는 5이닝 동안 8개의 탈삼진을 뽑아내는 등 7-0 경기의 승리투수가 됐다. 나성범은 연타석 홈런을 날리면서 승리의 주역이 됐다. 7월 22일 비가 내리면서 두산과의 홈 경기를 쉬었던 KIA는 7월 29일 안방에서 만난 롯데를 상대

올 시즌 18경기 13승 5패 7연승 질주에 극적 승리 많아

로 토요일 4연승에 성공했다. 윤영철이 6이닝 무실점의 호투를 펼치면서 롯데전 스윕의 연결고리가 됐다. 8월 5일에는 한화를 상대로 파노니가 홈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이날 파노니가 7회 2사까지 마운드를 책임지면서 토요일 승률을 높였다. 파노니는 또 10개의 탈삼진을 뽑아내면서 개인 한 경기 최다 탈삼진 기록을 새로 작성했다. 토요일 연승의 바통은 임기영이 넘겨받았다. 8월 12일 롯데 원정 선발로 나온 윤영철이 4.2이닝 5실점으로 흔들렸지만, 두 번째 투수 임기영이 2.1이닝을 완벽히 막으면서 13-5 대승을 이끌었다. 8월 19일 토요일 7연승 순간도 짜릿했다. 이번에도 임기영이 결정적인 순간 주인공이 됐다. 선발 산체스가 3회 구자욱에게 만루포를 얻어맞으면서 초반 흐름은 삼성의 몫이었다. 전날 KIA가 아쉬운 마운드 운영 속 2-12 대패를 당했던 만큼 연패를 걱정해야 했던 상황. 산체스가 6이닝 5실점으로 등판을 마무리한 뒤 7회 KIA가 대거 5점을 뽑으면서 역전극을 연출했다. 1-5로 뒤진 7회초 소크라테스가 선두타자로 나와 우측 2루타를 만들자 삼성이 선발 최재흥을 내리고 이승현을 투입했다.

김선빈이 2루 땅볼로 물러났지만, 이창진의 타석에서 유격수 송구 실책이 나오면서 3루에 있던 소크라테스가 홈을 밟았다. 김태균의 타석에 고종욱이 대타로 들어서자 삼성도 투수를 이재익으로 교체했다. 다시 한번 KIA가 대타 카드를 사용해 이우성을 타석에 세웠다. 그리고 이우성이 3구째 승부 끝에 좌월 투런포를 날리면서 4-5로 삼성을 압박했다. 잠시 뒤에는 김도영이 3루타를 날린 뒤 포효했다. 박찬호가 중전 적시타를 만들면서 KIA 덕아웃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최원준까지 안타 행진에 가세하면서 1사 3루가 됐고, 나성범의 중견수 희생플라이가 나오면서 KIA는 6-5 역전에 성공했다. 7회말 최지민이 나와 볼넷 하나는 내렸지만 병살타로 이닝을 마무리했고, 임기영이 8-9회를 21개의 공으로 막아내면서 토요일 7연승에 마침표를 찍었다. 토요일 극적인 순간도 많았다. 4월 7일 두산 홈경기에서 고종욱이 끝내기 안타 주인공이 됐고, 4월 22일 삼성 홈경기에서는 양현종의 160승과 변우혁의 첫 만루포가 기록됐다. 최지민이 KBO에서 첫 홈드를 수확한 4월 29일 LG 원정에서는 김규성·이우성·소크라테스의 KBO리그 역대 7번째 삼중도루가 장식됐다. 키움과 홈경기가 열린 5월 20일 챔피언스필드에서는 시즌 최다인 1만9030명이 입장해 3-2 승리를 지켜냈다. 5월 27일 LG와의 홈경기에서는 양현종이 162승을 기록, KBO 다승 단독 2위에 자리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이우성이 지난 19일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삼성과의 원정경기에서 2-5로 뒤진 7회초 1사 1루서 대타로 나와 투런포를 날리고 있다. KIA는 이 경기에서 6-5 역전에 성공하면서 토요일 7연승을 달렸다. <KIA 타이거즈 제공>

토틸넘 승리 이끈 캡틴 손흥민 “공격수로 행복해”

맨유 2-0 격파 앞장

토틸넘(잉글랜드)의 주장 손흥민이 새 수장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주창하는 ‘공격 축구’를 지지하며 만족감을 보였다. 토틸넘은 20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틸넘 핫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와 2023-2024시즌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2라운드에서 2-0으로 이겼다. 풀타임을 뛰면서 공격을 진두지휘한 손흥민은 주장 선임 이후 첫 승리를 올렸다. 개막전에서는 브렌트퍼드와 2-2로 비겼다. 영국 풋볼런던에 따르면 손흥민은 경기 후 스카이스포츠와 인터뷰에서 공격 축구를 내세우는 포스테코글루 감독 밑에서 뛰는 게 선수로서 ‘재미 있다’고 평가했다. 손흥민은 “(공격 축구의 결과는) 지난 2경기를 보면 안다고 생각한다”며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우리는 공을 소유하고 기회를 만드는 공격 축구를 한다. 공을 빼앗기면 다시 역으로 압박한다”고 말했다. 공격 축구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색깔을 설명할 때 현지 평론가·매체 등이 쓰는 표현이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스코틀랜드 명문 셀틱 시절부터 수비 라인을 높은 지점까지 올리고 대부분 선수를 공격에 참여시키고 있다. 브렌트퍼드전 공 점유율 70%·슈팅 18개를 기록한 토틸넘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도 공



맨유전 승리 후 기뻐하는 토틸넘 주장 손흥민. /연합뉴스

점유율(56%)에서 우위를 보였고, 슈팅도 17개를 쏟아냈다. 손흥민은 “(이 축구는) 정말, 정말 재미있다. 하지만 토틸넘 팬들에게 더 재미있을 것”이라며 “특히 공격수들은 100% 즐길 수 있다. 수비수가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내게는 전방에서 뛰고, 압박하는 게 70m 뒤에서 달려오는 것보다 쉽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감독이 다 다르고, 난 항상 그들을 존중한다. 내가 어떤 역할을 하면 그걸

해낼 것”이라면서도 “공격수로서 ‘높은 위치’(전방)에서 뛰고 압박하는 게 골문까지 거리가 더 짧다. 정말 행복하다”고 덧붙였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나는 임기를 시작한 후 몇 주 만에 완벽한 경기력에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명칭하지는 않다. 하지만 우리가 목표로 하는 팀이 될 수 있도록 성장의 싹은 보여줘야 한다”며 “나는 그걸 확실히 봤다”고 흡족해했다. /연합뉴스



메시, 우승 행거리 인터 마이애미의 리오넬 메시가 20일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의 지오디스 파크에서 열린 내슈빌SC와의 2023 리그스컵 결승전에서 연장 승부 끝에 우승을 이룬 뒤 동료들의 행거를 받고 있다. 메시는 미국 무대 데뷔 후 7경기 연속 골을 터뜨리면서 소속 팀 인터 마이애미에 리그스컵 트로피를 안겼다. /연합뉴스



광주FC의 이건희가 지난 18일 인천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인천유나이티드와의 원정경기에서 1-2로 뒤진 후반 추가 시간 동점골을 넣은 뒤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광주FC, 극적 동점골 7경기 연속 무패

인천유나이티드와 2-2

광주FC가 이건의 극적인 동점골로 7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달렸다. 광주가 지난 18일 오후 7시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인천유나이티드와의 하나원큐 K리그1 2023 27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2-2 무승부를 기록했다. 0-2의 승부를 뒤집고 만든 극적인 무승부였다. 광주가 초반부터 공세를 벌이며 승리 사상에 나섰다. 전반 16분 아론이 문전에서 골키퍼를 보고 때린 슈팅이 수비 맞고 뒤로 흘렀다. 전반 26분에는 허을이 때서온 헤더를 선보였지만, 인천 골키퍼 이태희의 선방에 막혀 득점은 실패했다. 전반 33분에 나온 이태희의 슈팅은 골키퍼 품에 안겼다. 전반 42분 인천 무고사가 골대 앞에서 가슴으로 공을 잡은 뒤 오른쪽 슈팅까지 시도했다. 골키퍼 김경민이 공을 막으면서 0-0으로 전반전이 마무리됐다. 후반 시작 4분 만에 광주가 실점을 기록했다. 골키퍼가 길게 올린 공이 전방에 있던 제르소에게 연결됐다. 두현석, 이순민, 안영규가 마지막까지 제르소를 추격했지만 원발 슈팅에 광주 골대가 뚫렸다. 후반 14분 광주가 제르소에게 두 번째 골을 허용했다. 이번에도 중앙에서 길게 넘어온 공을 제르소가 잡으면서 역습이 전개됐다. 제르소는 골키퍼를 피해 한 골대 앞으로 가 원발로 공을 밀어넣었다. 하지만 후반 교체 멤버로 들어간 아사니와 이건희가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후반 13분 교체 멤버로 투입됐던 아사니가 후반 33분 프리킥 상황에서 키커로 나섰다. 아사니가 원발로 때린 공이 포물선을 그리면서 골대 오른쪽을 뚫었다. 후반 41분 엄지성의 헤더가 이태희에 막혀서 아

쉬움을 남겼지만 후반 47분에는 광주가 환호성을 질렀다. 이순민이 왼쪽에서 문전에 있던 이건의를 향해 공을 올렸다. 이건의가 뛰어올라 머리로 방향을 바꾼 공이 골키퍼 이태희의 손에 맞았지만, 골라인을 넘어 떨어지면서 광주의 동점골이 기록됐다. 이후 추가 골이 나오지 않으면서 경기는 2-2 무승부로 마무리 됐다. 역전까지 이루지는 못했지만 광주는 이날 무승부로 7경기 연속 무패(2승 5무)를 달렸다. 광주 이정도 감독에게는 아찔했던 하루였다. 지난 3월 울림픽대포팀 경기에 나섰다 머리를 다쳐던 엄지성이 경기를 앞두고 어지럼증을 호소하면서 비상이 걸렸고, 티모는 경기 직전 위급업을 하다가 부상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했다. 아론도 몸이 좋지 않아 후반 시작과 함께 이순민과 교체 됐다. 이정도 감독은 “하루가 이렇게 긴 지 못했다. 아침부터 경기를 준비하는 데 엄지성이 뇌진탕 증세가 있어서 못 나올 뻔 했고, 티모가 괜찮다고 했는데 워밍업 하다가 아프다고 했다. 아론도 30분 만에 아프다고 했다”며 “혹시 몰라서 이상기를 준비하기는 했는데 어수선한 경기였다. 하루종일 고생한 동료, AT(Athletic Training)선생님들에게 감사하다. 선수들에게 안 좋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었다. 용기 있게 도전적으로 하면서 끝까지 따라갈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선수들을 칭찬하고 싶다”고 말했다. 끝까지 가는 승부에 박수를 보냈지만 준비했던 ‘역습’ 상황에서 연달아 실점을 한 것은 아쉬움이 됐다. 이정도 감독은 “인천이 어떻게 나올 지 알았다. 역습에서 골을 안 먹으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 계속 수비만 하다 보면 지지기 때문이다. 준비했던 부분에서 골을 먹어서 어이 없기는 했지만 지난 것이다”며 “골 먹은 것보다 골을 넣는 게 중요하다. 골 먹어도 괜찮다고 자신 있게 공격적으로 하라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